

8/14 월요일

아침의 누림

롬 1:1-4, 8-15

1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10 이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형통한 길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11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 주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인데,

12 그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13 형제님들,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가기로 몇 번이나 작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방해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14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빛진 사람입니다.

15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II.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한 분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죄 사함과 구원 등은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심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다. 이 놀라운 인격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다.

A. 다윗의 씨에서 나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보다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먼저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육신(肉身)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했다(1:3, 회복역 참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며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이다.

B.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이어서 바울은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고 했다(1:4).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분명히 보여 주는 말씀이다. 왜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중에 언급되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언급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앞에 두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成肉身)의 과정을 거치셨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치셨다. 그가 거치신 과정의 둘째 단계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단계를 거치셨는데 첫째 단계는 성육신(成肉身)이요, 둘째 단계가 죽음과 부활이다. 이 두 단계를 거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 바뀌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육신(肉身)이 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첫째 단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람 속으로 이끄셨으며, 그리스도의 둘째 단계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 속으로 인도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인격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요 1:18).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로마서 8 장 3 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신성(神性)과 아무 관계없는 요소와 육신(肉身)과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인 그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그 부분은 사람이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성, 즉 인성(人性)의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말한다(행 13:33, 히 1:5).

조그만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꽃이 필 때 우리는 그 씨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그만 카네이션 씨가 땅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는 이 씨만 보아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꽃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자라서 꽃이 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카네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꽃이 곧 이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것은 카네이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씨나 꽃이나 모두 카네이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꽃은 모양이 그 씨와 매우 다르다. 만일 이 씨가 꽃을 피우지 않고 씨 그대로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카네이션으로 실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지고 꽃이 핀 후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카네이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 반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마치 그 카네이션 씨와 같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죽음 속에 뿌려지고 부활하심으로 자라나서 꽃을 피우셨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육신, 곧 사람의 본성을 위로 올리셨다. 그는 육신을 벗으신 것이 아니었으며, 인성(人性)을 벗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올리시고, 변화시키셨으며 이러한 변화된 인성(人性)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성육신 전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본성이 없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올려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된 인성(人性)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肉身)이 되셨다. 구속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신성(神性)에는 피가 없으며 오직 인성(人性)에만 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구속에는 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赦)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구속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을 열어 준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다(요 1:29). 그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요한은 생명을 주는 비둘기가 함께한 그분을 소개한다(요 1:32-33).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으며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으며,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리스도의 과정의 첫째 단계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단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이 있다(요일 5:12).

로마서의 첫째 부분은 육신(肉身)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취(成就)하신 구속을 다룬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르시기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했다고 했다. 로마서의 둘째 부분은 생명을 넣어 주는 것을 다룬다. 로마서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구속자로 계시하며,

둘째로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한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생명의 그 영」이라는 말을 발견한다(회복역 참조). 이것이 내주하는 그 영이다. 내주하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은 실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8:9-10).

왜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되는가? 성경은 각 권(各卷)마다 독특하게 시작되는데 그 각 권들은 서로 같은 것이 없다. 8장 29절과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서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이와 같이 시작한 것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구속과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락된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즉 독생하신 아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의 모형(模型)과 본(本)으로 쓰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는가?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 불렸다.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겸한 한 아들을 얻으신 것이다. 성육신(成肉身)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다만 신성(神性)만 있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인성(人性)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오늘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어느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딸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자매는 다 형제이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다(갈 4:6).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많은 육신들 속에 오셨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다. 우리도 또한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다. 당신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육신의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아들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 육신의 사람은 거룩하게 하심과 변화와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이 육신의 사람이 성화와 변화와 영화롭게 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는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됐다.』라고 우리 모두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만일 당신이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보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 받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오고 있으며 - 로마서에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 안에 인정받을 것이다. 그 날에 우리는 선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 장 3 절, 4 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형(模型)으로 보여 준다. 로마서 8 장 29 절, 30 절에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된 많은 아들들을 본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모형을 생각하고 있다. 모형 속에는 거룩의 영이 있고, 육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이 있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도 안에는 거룩의 영이 있고 밖에는 사람의 육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 장)

8/15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1:16-25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됩니다.

19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20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입니다. 아멘.

오늘의 읽을 말씀**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은 불가능함**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든 사랑하지 않든 당신은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고 또 당신은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당신은 저를 용서하기를 거부할 법적인 입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바꾸실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에 매이셨습니다.』 이처럼 의는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

사랑과 은혜는 다 변할 수 있으나, 의는 견고하며 확고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사랑하지 않으시든지 자유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의에 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법적으로 매이는 위치 안으로 두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든 사랑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그분 자신의 의에 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의이지 사랑이나 은혜가 아니다. 시편 89 편 14 절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고 말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도 흔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초는 사랑도 은혜도 아닌 의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임을 계시한다. 만일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사랑스럽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함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빛에 대한 완전한 지불을 인정하셨다. 더욱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지불 영수증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영수증을 발급하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지불하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공의이겠는가? 만일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리스도를 지적해 드리고, 반드시 그분의 보좌의 기초이기도 한 그분의 위치를 보호하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저를 당신의 의에 따라 대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보좌는 흔들릴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제가 구원받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으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제가 멸망하는 것은 부차적(副次的)인 문제입니다. 주된 문제는 당신의 보좌의 의로운 기초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의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나의 모든 빛에 대한 그분의 지불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분은 지금 당신의 우편에 계십니다.

당신의 의에 따라 당신은 저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당신은 그분의 죽음을 받으셨으며, 그분을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시키셨고,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저를 용서하도록 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당신은 그분의 지불에 대해 만족하셨음을 나타내셨고, 당신은 지불 영수증을 발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분을 무덤 안에 남아 있게 하셔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사랑이나 은혜 안에서라기 보다는 당신의 의 안에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저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그분의 의에 따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표명됨

3 장 21 절에서 바울은 의에 관한 더 전진된 말을 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함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표명되었다(3:25). 이것은 다가올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看過)하셨다는 뜻이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불 못으로 가도록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지도 않으셨다. 그보다 그분은 그들의 죄들을 간과하셨다. 그들의 죄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예표하는 예표에 의해, 곧 희생 제물의 피에 의해서 덮여졌다. 이 문제에서 구약의 예표는 약속어음으로 비유될 수 있다. 예표는 사실적인 채무의 변제(辨濟)는 아니지만, 완전한 변제가 이행되리라는 확실한 약속이다.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죄인들에게 약속어음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예시(例示)했던 화해 제물이나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의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그분은 구약 시대에 발생했던 사람들의 죄들을 간과하실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의를 표명하기 위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하셔야 했다.

이것이 3 장 25 절이 언급하는 바이다.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이 곧 화해의 장소인 속죄소임을 계시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다. 그 이유는 주 예수님이 화해 제물로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제물로서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에 대한 모든 예표들을 이루셨다. 그때에 그 약속어음은 사실적인 지불로 대치되었다.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반드시 우리 죄들을 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분의 의를 선포하셨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므로 그분은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는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위한 지불 영수증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 장 3 절은 그리스도가 죄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지불 영수증이다. 이것은 엄청난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義)의 기초 위에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당신은 주님을 향해 열렬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래에는 주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이 정죄 의식과 실망감 아래 남아 있다면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당신은 대적의 간교함과 속임수에 굴복케 될 것이다. 그러한 때에 당신은 그분의 의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 그분께 말하라. 당신이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당신의 빛을 위한 지불 영수증으로서 그분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체험은 요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다(요일 1:9).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기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놓여 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뒤로 물러날 수 없다거나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주님께 신실할 것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같이 되지 말라. 그 기초는 우리의 열성이나 승리가 아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 보좌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또한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표명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 이제 이 의가 바로 우리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역사는 이 기초 위에 건축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기초가 인정됨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에 분명해야 한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의(義)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7 장)

8/16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2:1-4, 17-21, 28-29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을 유죄판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그대도 같은 짓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3 그런 짓을 일삼는 이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4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을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토록 인자하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17 그런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18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더욱 뛰어난 것들을 분간할 줄 안다 합니다.

19 또 눈먼 이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20 어리석은 이들을 바로잡는 사람이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대는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합당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1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그대가 어째서 그대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그대가 어째서 도둑질합니까?

28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9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A. 금지하는 길

이제 우리는 금지하는 길, 즉 나쁘고 악한 것을 막는 길을 보기로 하자. 나는 로마서의 이 부분을 좋아한다. 우리 모두, 특히 젊은

청년들은 이 금지하는 길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 그 만드신 만물로 하나님을 알

금지하는 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그 만드신 만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1:19-20).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神性)은 그 만드신 만물로 알 수 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나타낸다. 약 20년 전에 대만(臺灣)에 있는 형제들이 과거 수세기에 걸친 유명한 과학자들에 대한 전기(傳記) 자료를 수집한 일이 있었다. 그 형제들이 발견해 낸 것은 이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극소수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어떤 논문집(論文集)에서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질문은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일개의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과학을 연구한다면 과학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나는 과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시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에 난 모든 체모(體毛)는 목 안에 있는 털을 제외하고는 밖에 있는 것이나 안에 있는 것이나 다 아래로 자란다. 즉 목 안에 있는 털만은 위로 자란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만일 목 안에 있는 털이 아래로 자란다면 가래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더욱이 우리 얼굴의 놀라운 생김새를 생각해 보라. 입은

적당한 위치에 있다. 만일 우리의 입이 두 눈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보기 흉하고 무섭게 보이겠는가! 또한 당신은 눈썹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두 눈썹은 마치 방파제(防波堤)처럼 우리 두 눈에 땀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준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설계(設計)했는가? 얼마 전에 나는 오른쪽 눈을 두 번 수술 받은 일이 있다. 의사는 나에게 의안(義眼)을 보여 주면서 눈의 렌즈와 망막(網膜)을 가리켰다. 즉시 나는 이것이 사진기와 똑같은 것임을 알았다. 어떤 사람도 사람 눈에 맞는 사진기를 만들 수 없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우리의 치아(齒牙) 또한 놀랍게 되어 있다. 우리의 앞니는 마치 두 개의 칼과 같아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르는 일을 한다. 그다음 혀는 그 음식을 멧돌 같은 어금니로 보내고 어금니는 소화하기 쉽도록 음식물을 으갠다. 어금니가 으개는 일을 할 때 침이 분비되어 음식물을 액화(液化)시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물을 보고, 특히 사람의 몸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사라도 사람의 몸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어진 만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창조의 아름답고 경이적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만드신 만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악을 막는 첫째 길이다

2. 의로 진리를 잡음

우리는 의(義)로 하나님의 실재를 잡아야 하며 우리의 지식(知識)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1:18, 28).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섬겨야 한다(1:21, 25). 이 네 가지를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할아버지로서 이 훈련 집회에 참석한 손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내 말을 믿기 바란다. 십대(十代) 청년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만일 내 자녀들이 백만 달러를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싫어할 것이다. 나는 내 이세(二世)나 삼세(三世)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고 부자만 되려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여기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3. 본성의 율법을 순종함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本性)에 따라 행해야 한다(2:14).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하다 하여 본성에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죄한다. 그들은 아마 본성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좋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의미에서는 나도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본성을 소홀히 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을 때에는 좋은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까지 원래 좋은 것이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행동함이 필요하며 이 본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 당신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고집한다 하더라도 당신 속에 있는 본성은 당신이 훔치려 할 때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은행 강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은행에 침입할 때 그들의 본성이 『이런 강도 짓을 하지 말라.』 하고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범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들의 본성은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본성이 우리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로마서 2 장 14, 15 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증거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주어졌다. 그 이유는 법을 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서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밖에 있는 율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4. 양심에 귀를 기울임

우리에게는 선(善)한 본성(本性)과 함께 또한 양심이 있다(2:15). 양심이란 하나의 놀라운 실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의사들이 인체 속에서

양심을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당신이 부모님과 다툼 때 양심은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부모님을 거스른다면 당신의 양심은 사흘 동안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려는 남편들도 모두 양심에 가책을 받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모두 양심이 있다. 이것은 위대한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합당한 이성(理性)을 주의함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양심 이외에 우리에게서 생각 속에 이성(理性)이 있다(2:15 - 회복역 참조). 우리의 생각이 무조건 무익하다는 말은 영적인 말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선한 이성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이성으로 송사(訟事)하고 정죄하며 때로는 변명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이성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예, 그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이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지하는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즉 그의 만드신 만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의(義)로 하나님의 진리를 잡는 것, 우리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합당한 이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만일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지킨다면 우리는 온갖 죄악을 막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고 로마서 5 장부터 8 장의 어느 부분인가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죄악의 근원과 죄악을 막는 길을 알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만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의(義)로 하나님의 진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합당한 이성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모두 실행한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 장)

8/17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3:9-20

9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11 깨닫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도 없다.

12 모두 빛나가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다.

16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이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분명히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칭의의 부분을 보기로 하자(3:21-5:11).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1483-1546)]는 칭의를 위한 격렬한 투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칭의는 성경에서 하나의 큰 교리이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의 진리를 위해 투쟁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칭의가 화해와 구속과 화목과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用語)들을 살핌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의(義)에 대해서 생각함이 필요하다.

I. 하나님의 의(義)

A. 공의와 의로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義)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롬 3:21-22, 1:17, 10:3, 빌 3:9). 하나님은 공정(公正)하시며 의로우시다.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은 모두 그분의 의가 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실제로 그분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속성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다.

B.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義)이신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의(義)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의(義)는 그리스도의 의(義)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義)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義)가 되셨다(고전 1:30). 그리스도의 의(義)가 당신의 의(義)가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義)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인격이시며 하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체현(體現)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만드셨다.

C.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믿는이들

고린도후서 5장 21 절 말씀에서, 믿는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된다고 하였다. 바울은 믿는이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고 믿는이들이 의(義)가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義)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役事)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며, 하나님은 한 분의 살아 계신 인격자로서 의(義)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의(義),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義)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역사(役事)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義)가

되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役事) 되셨으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물이 한 컵이 있다 하자. 만일 차(茶)를 이 물속에 탄다면 이 물은 이제 맹물이 아니라 차물이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役事)되시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義)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인격이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義)이신 그리스도의 산 인격은 우리 안으로 역사(役事)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義)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義)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義)이시며 나도 또한 의(義)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義)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나도 그대로이다. 나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시인(是認)하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신다. 우리는 서로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신다(롬 3: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D. 칭의 -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인정받음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란 하나님의 의(義)의 표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義)이며 우리의 의(義)가 아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거나,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그 높이가 한 치도 못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義)는 얼마나 높은 것인가? 그것은 무한대(無限大)이다. 당신의 의(義)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 -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 - 에게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의(義)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의 의(義)의 표준으로 당신 자신을 의롭다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의 의(義)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칭의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根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 만일 그러한 구속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속은 칭의의 근거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8/18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3:21-31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언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25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26 지금 이때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7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8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율법을 없애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II. 그리스도의 구속

A. 구약에 나타난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에게는 구약에 나타난 속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레 16:34, 25:9).

1. 죄값의 보상

구약에서, 속죄란 죄값을 보상(補償)하는 것이었다(레 25:9, 민 5:8). 죄값을 보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의미이다.

2. 속죄소

속죄소(贖罪所)[흠정역에서는 「시은좌(施恩座)」라고 번역됨]는 법궤의 덮개였다(출 25:17-22, 레 16:14, 히 9:5). 이 속죄소 밑에는 하나님의 증거(證據)라고 불리우는 율법(증거판)이 있다(출 25:21). 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렸는가? 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증거되었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출 25:19-20, 히 9:5, 롬 3:23). 그러므로 속죄소 밑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 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

속죄소에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다(레 16:14, 18 참조). 속죄일(贖罪日), 즉 죄값을 갚는 그 날에 속죄 제물은 피를 흘리고, 그 피는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 그 피는 말하는 피였다. 그 당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두 가지 문제 -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 - 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합하는 길이 없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 베풀 은혜가 있었지만 그 둘을 서로 가깝게 하는 길이 없었다. 서로 가깝게 되는 길, 즉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죄값을 보상하는 방법이며 속죄의 방법이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 즉 죄값을 보상하려면 피를 흘릴 제물(祭物)이 필요했다. 이 피는 지성소(至聖所)로 옮겨져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속죄소 아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올 때 그들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율법이 있으며 속죄소 위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 속죄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으며 그 피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다. 그러므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義)와 영광을 범하지 않고 합법적(合法的)인 방법으로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과 교통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였다. 이것이 속죄이며 죄값에 대한 보상이었다.

B. 신약에 나타난 구속

1. 화해

구약에 나타난 죄값에 대한 보상은 신약에 나타난 화해의 예표(豫表)였다. 화해는 신약에서 적어도 다섯 번이나 나타나 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화해 제물이 되셨다고 했다. 이 두 구절에서 화해 제물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화목의

제물」로 바쳐져야 할 제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두 구절 가운데 있는 힐라스모스(hilasmos)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의 제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을 볼 때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다. 화해에 관한 또 하나의 헬라어인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발견된다. 이 단어는 화해의 제물이 바쳐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믿을 만한 참고 문헌에 의하면 위 두 구절에 쓰여진 단어는 화해 제물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되어 있으며, 흠정역 성서(欽定譯 聖書: King James Version)에서는 시은좌(시은좌:mercy seat)라고 되어 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七十人譯 聖書)[B. C. 270년경에 완성된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성서 - 역자 주]를 보면 이 단어는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16장에 있는 시은좌에 대한 말이다. 이와 같이 힐라스테리온(hilasterion)은 화해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힐라스코마이(hilaskomai)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명사(名詞) 힐라스모스(hilasmos)의 동사형(動詞形)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셨다. 화해에 관한 구절은 신약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에서 다섯 번 나타난다. 두 번은 화해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구절이며, 두 번은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구절이고, 한 번은 화해의 행위(行爲)에 대한 구절이다.

신약에 나타난 화해에 대한 이 다섯 구절 이외에, 성전(聖殿)에서 기도하던 세리(稅吏)가 화해와 같은 어근(語根)을 가진 말을 사용한 일이 있다(눅 18:13). 우리 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흠정역:

『God, be merciful to me.』)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라는 의미이다. 그 세리(稅吏)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오, 하나님여,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나는 당신이 볼 때 죄인입니다. 나에게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말을 한면으로 구속과 어떻게 구별하며 다른 한면으로 화목이라는 말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화목이 화해를 포함하는 말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의미의 말은 아니다. 화해라는 말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다. 즉 당신이 그 사람을 불쾌하게 했거나 혹은 무엇인가 빛을 졌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당신에게 빛을 지게 되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 하자. 이 문제, 혹은 빛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요구 조건이 있게 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요구사항이 이행(履行)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화해가 필요한 것이다.

헬라어로 힐라스모스(hilasmos)라는 단어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빛을 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란 잘못을 저질러 빛을 지게 된 측(側)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잘못된 측이 잘못을 당한 측을 진정시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 70 인역 성서(七十人譯 聖書)는 레위기 25 장 9 절과 민수기 5 장 8 절에서 속죄에 대한 말로 힐라스모스(hilasmos)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쌍방을

화해(和解)시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속죄하는 일이다. 속죄란 쌍방을 하나로 이끄는 것이다. 갈라져 있는 쌍방이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화해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속죄이다. 즉, 화해의 행위가 속죄인 것이다. 화해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한 문제,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없게 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문제는 우리의 죄(罪)였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2. 구속

화해와 구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구속이란 원래 갖고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 찬송가는 내 것이다. 만일 이 찬송가를 잃어버렸다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 찬송가를 산다면 나는 그 찬송가를 구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소유(所有)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으며 그분의 소유였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으셨다. 즉 막대한 대가로 우리를 다시 얻으신 것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얻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바 된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의(義)와 거룩함과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義)와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 즉 의(義)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가 해결되어야 했다. 많은 요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으며 이 막대한 대가로 우리를 다시 소유하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다(갈 3:13, 벰전 2:24, 3:18, 고후 5:21, 히 10:12, 9:28).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다(히 9:12, 14, 벰전 1:18-19).

3. 화목

원수가 된다는 것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의 원수라면 화해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나에게 화목이 필요하다. 원수가 된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화목이 필요하다. 화해는 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목은 죄는 물론 원수 된 것을 해결한다. 그러므로 화목은 화해를 포함하는 말이다. 로마서 5 장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뿐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서 화해가 필요했고 원수의 상태에서 화목이 필요했다. 여기에 화해와 화목의 차이가

있다. 즉, 화해는 죄를 위한 것이며 화목은 죄와 원수 됨을 위한 것이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롬 5:10, 11) 하나님의 칭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후 5:18-19, 롬 5:1, 11). 그러므로 화목은 칭의로 얻어진 구속의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義), 칭의, 화해, 구속, 화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말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니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 장)

8/19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4:3, 7-13, 20-25

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7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8 주님께서 결단코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9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입니다.

11 그런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12 또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3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 곧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22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23 이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5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II.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족속은 믿는 족속이 된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믿는 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시기를 말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의뢰한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간다.』 아브라함의 역사(歷史)를 살펴보면, 그의 생활은 의뢰하는 생활이었고 믿는 생활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다 할 것이다. 다만 나와 함께 거하라. 내가 움직일 때 너도 움직이라. 너는 내가 가는 곳을 가야 한다. 너 스스로, 너 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다만,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이것도 옳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원대(遠大)하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자신을 끝내야 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나는 단지 어떻게 주님을 의뢰하는가를 알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완전히 의뢰한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아 믿는 족속의 간증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우리는 믿는 백성이다(갈 3:7-9).

A.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였다(롬 4:17).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창조주(創造主)이시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고 환경을 통해 이 하나님을 누렸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삭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기로 돌렸다. 이삭이 존재하지 않고 생겨날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 그 후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돌렸던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B.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였다(롬 4:17).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이것을 체험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히 11:17-19).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 아들을 부활로 다시 얻으실 것을 믿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생명 주는 분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도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속해 있는 지방 교회의 상태가 풍성하지 못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사실 빈곤하고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주님이 오시어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옵소서.』 당신은 어떤 지방으로 이주(移住)해서 그 지방이 사망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당신은 그분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어야 한다.

1949년에 나는 대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 섬을 미개한 지역으로 생각했다. 나는 극동에서 제일 큰 도시인 상해(上海)에 살면서 사역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강했다. 천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다. 우리에게는 17개의 집회소가 있었고 네 종류의 간행물이 있었다. 갑자기 나는 중국 본토에서 작은 섬인 대만으로 옮겨졌다. 나는 바뀌어진 형편을 바라보고 몹시 실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개한 지역에서 사역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우리가 왔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요?』 나의 마음은 몹시 착잡했고, 아내도 아무런 위로의 말을 주지 못했다. 어느 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나에게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후 나는 대만에서 사역할 부담을 가졌다. 5년이 못 되어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350명에서 20,000명으로 성장했다. 첫째에 거의 30배가 증가했다. 그 시기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동역자(同役者)가 되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속한 지방의 형편에 실망하지 말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사망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곳이야말로 당신과 하나님에게 적당한 장소이다. 부족함이 있는가? 당신에게는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부요한 하나님이 있다. 사망이 있는가? 당신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신 하나님이 있다. 당신이 환경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올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으라. 당신의 가정 형편에 실망하지 말라. 당신의 아내는 부족하고 당신의 남편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의 아내는 부족하다고 말할수록 더 악화된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 『내 아내는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내 남편은 사망이지만 내 하나님은 사망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산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내 환경은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기회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6장)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3장

8/20 주일

아침의 누림

갈 2:16, 20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을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3:2-6, 22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4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습니까?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5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6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 5:6

6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엢 3:12

12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3:1-20;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33-34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Crucial Point: Our Interceding Christ

Scripture: 로마서 8:26-27, 3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19

Supplemental Reading: *The Prayer Ministry of the Church*, chs. 1, 4-5

찬송: 201

For study questions and additional materials, please visit the church website at churchinnyc.org/bible-study

찬송: 30 오 아버지의 큰 사랑에 (中:25)

1 오 아버지의 큰 사랑 감사를 드리네 주 기록하신 그 이름 경배해 찬양해.

2 마음을 열어 계시해 뜻 알게 하셨네 그 아들 안에 오시어 뜻 다 이루셨네.

3 우릴 사랑해 아들을 버려 죽게 했네 우리도 상속자 됐네 그 아들들 됐네.

4 주 인해 우린 하나님 생명을 얻어서 주 기록하신 본성에 참여하게 됐네.

5 우리 영에 아들의 영 보내주시어서 거듭나고 도장 찍혀 변화되게 하네.

6 주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 이루게 해.

7 이 변화 과정 모든 것 주께서 이끌어 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네.

8 오 아버지의 큰 사랑 감사를 드리네 다 무릎 꿇어 경배해 그 이름 찬양해.